

독일 라이히스타크 - 열린 공간이자 친환경 건축의 비전

- 의사당 건물로 근현대 역사 투영, 독일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



성 유 경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
sungyk@cerik.re.kr

국회의원보다는 관광객과 시민들로 붐비는 국회 의사당이 있다. 라이히스타크(Reichstag)으로 불리는 독일의 국회의사당이 그렇다. 의사당 앞 넓은 잔디밭은 따뜻한 햇살과 산책을 즐기기에 나온 시민들의 것이고, 무료로 개방된 의사당 유리 돔은 관광객들이 베를린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이다.

라이히스타크는 첫 모습부터 인상적이다. 옛 건축과 새로운 건축이 아슬아슬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고풍스런 석조 건물과 그 위에 올라앉은 현대적인 유리 돔은 조화롭다고 느끼면, 그렇지

않던 그 누구에게라도 깊은 인상을 남긴다. 라이히스타크의 이러한 모습에는 독일의 역사가 투영되어 있기에 더욱 의미 있다.

독일 근현대사가 투영된 건축

1871년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후 라이히스타크의 건설이 계획되었다. 첫 계획은 순조롭지 못하여 통일 이듬해인 1872년 현상설계가 열렸으나 건축되지는 못하였다. 1882년 다시 열린 현상설계에서 파울 발로트의 설계안이 채택되었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894년에 라이히스탁이 완공되었다.

라이히스탁은 이후 수난이 시작된 1933년까지 독일제국의 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던 중 1933년 라이히스탁에 화재가 발생한다. 화재는 당시 공산당원의 범행으로 밝혀졌었다. 그러나 그 화재를 계기로 히틀러의 독일 공산주의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히틀러가 집권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때문에 지금은 화재 사건을 나치당의 음모로 보는 시각이 많다.

라이히스탁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더욱 크게 파손된다. 항복 전 독일의 마지막 저항선이었던 베를린의 많은 건물들이 소련의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라이히스탁 역시 크게 부서진 것이다. 전쟁 후에는 라이히스탁 옆으로 베를린 장벽을 둘러쳤다. 동독과 서독, 동구와 서구의 냉전, 그 최전선에 라이히스탁이 박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냉전이 끝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부터 라이히스탁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었다. 통일 독일의 역사적인 첫 연방의회가 라이히스탁에서 열렸다. 이후 주변이 행정지구로 개발되고, 라이히스탁도 리노베이션되었다. 1999년 4월에는 새롭게 단장한 라이히스탁에서 다시 의회가 개최되었다. 라이히스탁의 개축은 성공적이어서 지금은 국회의사당 건물로서 뿐 아니라,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베를린의 명소가 되었다.

유리 돔의 상징

라이히스탁에서 가장 빛나는 공간은 유리 돔이다. 독일의 근현대사와 함께한 라이히스탁의 역사성과 국회의사당 건물로서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개축 당시 새로운 유리 돔은 큰 논란이 되었을 것이다. 파울 발로트의 설계대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

해야 하지 않았을까? 의사 결정자들은 라이히스탁의 내부 공간과 돔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건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건물 외관은 19세기 통일 독일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부 공간과 유리 돔은 냉전 후 21세기 통일 독일의 상징을 담은 공간으로 거듭난 것이다.

유리 돔에서는 나선형의 경사로를 통해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다. 하늘을 걷는 것 같기도 한 유리 돔의 경사로에서는 베를린 시내를 조망할 수가 있다. 나선형 경사로에서는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의 동선이 엮히는 일이 없다. 눈으로는 하나의 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돔의 가운데에는 거울로 된 원뿔형 기둥이 있다. 유리 돔과 원뿔형 기둥이 있는 이 공간에서는 어디를 찍어도 사진 작품이 된다.

돔 중앙의 바닥을 내려다보면 대회의실 내부가 보인다. 의사당의 대회의실은 유리 천장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유리 돔이 있는 것이다. 의원들이 회의 중 고개를 들면 무엇이 보일까? 하늘을 걷고 있는 국민들이 보일 것이다. 국회의사당은 국민의 의견을 대리하여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국회의사당 건물은 국민의 권위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건물로 건설된다. 유리 돔은 관광객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정치인들에게 머리 위의 국민보다 더 직설적인 상징이 있을 수 있을까.

'친환경' 건축 라이히스탁

라이히스탁은 독일의 친환경 정책을 제시하는 건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뛰어난 미관의 유리 돔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친환경 장치이기도 하다. 원뿔 모양의 거울 기둥은 자연 채광의 도구 역할을

인류 역사와 함께한 건설 상품 100선 60

하고 있다. 기둥은 회의장에서부터 돔까지 연결되어 있고, 유리 돔을 통해 들어온 태양광은 이 기둥에서 반사되어 대회의실까지 전달된다. 굴뚝효과를 이용한 자연 환기도 이루어진다. 건물 내부의 더워진 공기는 유리 돔 꼭대기로 배출되고, 신선한 공기는 그물 구조의 대회의실 바닥과 카펫을 통하여 걸러짐으로써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게 된다.

태양열, 지열, 바이오디젤 연료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도 적용되었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건물 남쪽 지붕에는 300㎡ 면적의 태양전지가 설치되었다.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는 바이오디젤을 연료로 사용하여 얻기도 한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vegetable oil)이 원료인 무공해 연료이다. 지열 시스템은 지하 지반에서 에너지를 얻도록 해주고 있다. 여름에 건물에 발생한 과잉 열은 300m 아래의 대수층에 따뜻한 물로 저장되어 겨울에 사용되며, 겨울 공기에 의해 차가워진 물은 60m 아래의 대수층에 저장되었다가 여름철 냉방을 위해 사용된다. 라이히스탁은 에너지의 사용과 생산을 줄이고,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노만 포스터가 설계

라이히스탁에 새롭게 부여된 미와 기능, 상징은 이제 그 역사성보다도 더 주목받게 되었다. 누가 이런 국회의사당을 설계했을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토록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1992년 라이히스탁 주변의 대지와 정부 건물에 대한 공모전이 열렸다. 여기에는 58개국에서 830개의 건축안이 접수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라이히스탁의 설계안은 관심은 높았으나 그 난이도로 인해 단 80개가 접수되었다. 국회의사당 심의위원

들은 최종적으로 3개의 안을 선정했는데, 이때 노만 포스터의 안은 커다란 지붕을 천막처럼 국회의사당에 씌운 것이었다. 심의위원들은 3명의 당선자들에게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안을 요구했다. 그리고 마지막 심사에서 노만 포스터의 설계안이 당선되었다. 독일 국회의사당을 영국 건축가 노만 포스터가 설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을 일본이나 중국의 건축가가 설계하도록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심의위원들은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사당의 설계와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건축가의 것이지만, 이것을 현실화시킨 사람들은 이를 결정한 사람들이었다. 당선된 노만 포스터의 설계안에는 돔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돔을 설계해줄 것을 요구했다. 심사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예전 파울 발로트의 설계대로 돔을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돔을 세울 것인가를 놓고 갈등했다. 이 또한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1995년 공사가 시작되기 전, 라이히스탁에는 커다란 이벤트가 열렸다. 예술가 크리스토가 15년간 정부에 요청한 끝에 라이히스탁 전체를 포장하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포장된 라이히스탁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이벤트 후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9년 개장 후 지금까지 많은 방문객을 맞이했으며,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다. 라이히스탁의 새로운 유리 돔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라이히스탁은 새로운 모습 그대로 베를린의 랜드마크로서 인정받고 있다.

베를린의 국회의사당, 라이히스탁은 역사에 대한 존중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나타나 있는 건물이자, 대중에게는 열린 공간이며, 친환경 건축에 대한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